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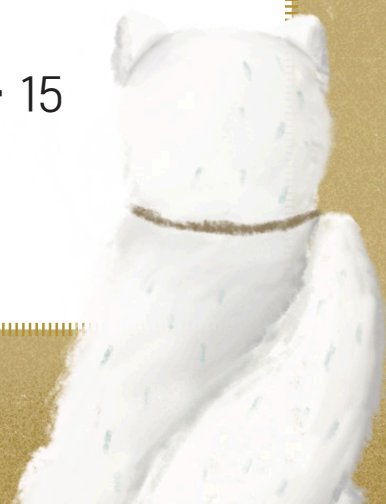
북극여우 리사

명소정 글 · 이슬 그림

북극 겨울 여행기

차 례

1. 세상으로 나간 리사 3
2. 사막여우 구출 작전 6
3. 코사크여우 가족 8
4. 탐험가 여우를 만나다 10
5. 아랄해의 나이 든 여우 12
6. 그리고 다시, 겨울 15



1. 세상으로 나간 리사

리사는 늦은 봄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리사 주변에 있어 주었던 건 늘 인간들이었고, 태어나면서 듣고 배운 말도 인간의 것이었다. 윤기 나는 털도, 예쁘고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린 가죽 목걸이도 사육사 덕에 갖게 된 리사의 자랑이었다.

한낮이 되면 리사는 통나무로 쌓은 탑 위로 올라가 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경했다. 리사의 우리 바로 앞쪽에는 하얀 털을 뿜내며 풀을 뜯는 양 떼 우리가 있었다.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 카나리아 옆에 거대한 간판이 보였다. ‘시티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사는 환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것은 리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단어였다. (10쪽)

Q1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리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환영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누군가를 환영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지 적어 보세요.

Q2

리사는 동물이지만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란 쉬울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바깥에 내 진짜 고향이 있을지도 몰라. 나 같은 동물이 잔뜩 사는 고향이.’

자신의 털처럼 하얗게 변한 바깥세상을 돌아다니면 그곳이 어딘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리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다. (11쪽)

Q1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리사는 바깥세상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고향을 상상하며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리사는 왜 자신의 고향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Q2

여러분에게도 만약 리사처럼 고향이 있다면, 자신의 고향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요?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 있을지 떠올려 보세요.





“이 배를 타려고 하는 거니?”

리사는 말을 거는 선장에게 다가가 그와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장은 리사가 배를 타길 원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공짜로 배를 타는 것은 선장으로서 허락할 수 없었다.

“네가 배에 타는 동안 쥐를 잡아주면 타는 걸 허락하지.”

리사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태어나 쥐는커녕 무언가를 사냥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사의 풀죽은 표정을 선장도 읽은 건지, 그는 그럼 어떻게 뱃삿을 치르겠냐고 물었다. 그때였다. 방금 리사에게 이 배에 타면 된다고 말한 아이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배에 오르고 있었다. (36쪽)

Q1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배를 탈 돈이 없는 리사가 배를 타는 대신 배에 있는 쥐를 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선장의 마음과 이야기를 듣는 리사의 마음이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Q2

선장은 리사가 할 수 없는 일을 뱃값 대신 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2. 사막여우 구출 작전

리사는 사막여우의 모습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동물원에서는 여우라고 해서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동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히려 비슷한 구석을 찾기가 힘들었다. 같은 여우를 만나고 말까지 통하면 무척 반가울 줄 알았는데, 그토록 기다려왔던 만남은 기쁘기보다는 낯설었다

“넌 전혀 여우 같지 않은걸.”

“내가 보기에는 너도 그래. 어린 왕자랑 네가 같이 있는 동상을 봤는데, 그 동상보다도 훨씬 귀가 큰걸.”

“어린 왕자는 또 누군데?”

“나도 잘 몰라. 너의 친구라던데, 아니야?”

“나는 사람하고는 친구 안 해.”

사람하고는 친구를 안 한다니. 리사는 자신을 보살펴주던 사육사의 손길을 떠올렸다. 배 위에서 며칠 동안 저녁을 같이 보낸 멜리사의 얼굴을 생각했다. 여기 오면서 모진 꼴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리사에게 있어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 (46~47쪽)

Q1

리사는 ‘그레이트 샌드 시’에서 사막여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리사와 달리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사막여우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동물과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Q2

사막여우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리사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아이들이 사라진 건 리사가 사막을 헤매다 쓰러졌을 때를 말하는 거였다. 사막여우는 아이들을 찾느라 정신없던 와중에도 처음 보는 리사를 구했던 거였다.

“그러다 쓰러진 너를 만난 거야.”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던 리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막여우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진 않았다. (53~54쪽)

Q1

사막여우가 리사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3. 코사크여우 가족

리사가 잠시 여정을 쉬어가기로 한 곳도 여기였다. 케르만샤주의 주도인 케르만샤는 산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넓은 도시였다. 버스 터미널은 물론 공항도 있는, 평야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양새였다.

리사는 잠깐 이곳에도 동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굳이 그걸 알아보고 싶지는 않았다. 리사는 그보다는 다른 문제로 크게 당황스러웠다. 예전에는 전부 알아볼 수 있었던 표지판들이 군데군데 흐릿하게 보였다.

‘이맘 호○○○ 병원’, ‘○○○○은행’, …… 리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리사는 자신의 그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78~80쪽)

Q1

동물원에 살던 리사는 고향을 찾기 위해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케르만샤에 다른 뒤 이곳에 동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알아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리사는 왜 동물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리사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Q2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리사는, 어느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때 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지. 밤에 밝은 별이 뜨는 곳이 북쪽이고. 이런 건 살다 보면 다 아는 거 아냐? 완전 상식이잖아.”

리사에게 그런 것들은 상식이 아니었다. 우리 속의 리사는 동쪽이나 북쪽을 찾아야 할 일이 없었다. 그랬기에 해가 늘 같은 곳에서 뜨고 지는 걸 알았음에도 그곳이 어느 방향인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89쪽)

Q1

붉은여우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지는 쪽이 서쪽’이라는 사실을 리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상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상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Q2

내가 당연히 아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얘기해 주세요.



4. 탐험가 여우를 만나다

“리사는 러시아어로 여우라는 말이거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다. 리사는 자신의 이름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신을 아껴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친구인 멜리사와 닮아 있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담긴 뜻이 그냥 여우라니. 탐험가 여우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무 말이나 해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뭐, 리사가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냐. 그냥 여자아이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리사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자, 탐험가 여우는 계속 머리를 굴리더니 겨우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내놓았다.

“에잇, 그냥 내가 새로 지어줄게. 탐험가라는 이름은 내가 썼으니까……. 아, 여행자 여우 어때? 보니까 너도 처음부터 이곳에서 산 건 아닌 것 같던데, 그럼 꽤 먼 거리를 걸어왔을 거 아냐?” (129~130쪽)

Q1

리사는 자신을 아껴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 ‘리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단순하게 ‘여우’라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알고 있나요? 그 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Q2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특별한 별칭을 붙일 수 있다면, 어떤 별칭을 고르고 싶나요? 그런 별칭을 붙이고 싶은 이유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리사는 친구라는 단어를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리사가 멜리사를 본 것은 며칠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도 이 나침반 외에는 없었다.

“어린 사람이 왔어. 선물이라면서.”

“좋은 사람이네!”

“……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멜리사를 그렇게 말하는 건 탐험가 여우 외에는 없었다. 리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탐험가 여우를 제외한 모든 여우가 인간은 자신을 해치는 존재라고만 말했다. 아내 여우에게는 자신이 사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날을 세웠고, 사막여우 또한 인간 친구의 존재를 부정했다. (131~132쪽)

Q1

지금까지 만났던 사막여우와 코사크 여우 가족은 사람이 여우를 위협하는 나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탐험가 여우는 사람인 멜리사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탐험가 여우가 다른 여우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2

다른 모든 여우가 인간은 자신들을 해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탐험가 여우만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유도 함께 말해 주세요.

5. 아랄해의 나이 든 여우

리사가 바다를 본 것은 동물원을 막 떠났을 때뿐이었다. 기억은 그때의 기분에 따라 다른 색으로 칠해진다. 리사에게 바다는 그때는 피지도 않았던 봄꽃의 색을 닮아 있었다. 짹짹한 향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던 그때의 기억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리사는 오랜만에 다시 마음이 들떠 왔다. (149쪽)

Q1

리사는 자신이 처음 봤던 바다를 떠올리며 “피지도 않았던 봄꽃의 색”을 닮았다고 묘사하는데요. 여러분은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그 바다는 어떤 색을 닮아 있는지 묘사해 주세요. 아직 본 적이 없다면, 상상 속에 있는 바다는 어떤 색깔인지 묘사해 주세요.

Q2

“기억은 그때의 기분에 따라 다른 색으로 칠해진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좋은 인간은 없는 걸까요?”

나이 든 여우는 눈을 크게 한 번 뜨고는 깊게 숨을 내뿔었다.

“네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이라는 건 뭐니?”

“우리를 해치지 않는 인간이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설령 마주친다고 해도 우리를 죽이지 않는.”

“괜찮은 대답이구나. 그러나 네 말대로라면 세상 모든 인간은 네게 좋은 인간일 수 없겠구나.”

.....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단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기도 하지.” (155~156쪽)

Q1

여우인 리사는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나요?



Q2

나이 든 여우는 모든 인간이 여우와 같은 존재에게 죄를 짓고 있으며, 동시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든 여우는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나요?

Q3

리사는 인간이 좋은 존재인지, 나쁜 존재인지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좋은지 나쁜지 정의를 내려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6. 그리고 다시, 겨울

“있잖아, 탐험가 여우.”

“응?”

“네 마지막 여행지는 어디로 할 거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그게 리사가 든 생각이었다. 리사가 고향에 가게 되면 다시 그곳을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탐험가 여우는 씩 웃으며 유쾌하게 대답했다.

“글세, 내가 정할 수는 없겠지. 계속 여행하다 죽으면 거기가 내 마지막 여행지가 될 테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만, 만약 정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동쪽 끝이었으면 좋겠어. 이 동쪽 끝에는 바다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반도가 있대.” (168~169쪽)

Q1

리사는 함께 여행을 다녔던 탐험가 여우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리사와 탐험가 여우처럼 소중한게 생각했던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경험이 있나요?

Q2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던 탐험가 여우는 자신의 마지막 여행지가 ‘아시아 동쪽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탐험가 여우처럼 여행을 다니게 된다면, 어떤 곳에 가보고 싶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유도 함께 말해 주세요.



“웬 개가 여기에 있어? 이봐, 너는 여기 못 들어오니깐 가라, 응?”

리사는 선원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배를 타려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 알아챘다. 누군가가 그 마음에 응답하기라도 한 건지 때마침 리사의 앞에 배를 향해 몰래 기어가던 쥐가 나타났다.

“아니, 개에 이어서 쥐는 또 왜……”

리사는 뒷발에 힘을 준 채 폴쩍 뛰어서 쥐가 있는 방향으로 단숨에 다가갔다. 사냥에 성공했을 때의 기억이 리사의 시야 위로 비쳤다. 덩석. 리사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로 가던 쥐를 잡아챘다. (178~179쪽)

Q1

리사가 동물원에서 탈출해 처음 배를 탔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리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달라진 리사의 모습과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Q2

리사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리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